

민주노동당 분당협박 좌시 않을터

⌘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1.31 11:07

“원칙없는 신당추진은 진보정치 싹 자르는 우 범하는 것”...민주노동당 단결을 촉구하는 지지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사진1]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 지지단체들이 민주노동당 최근 분열논쟁을 비판하고 당 단결과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전농·전여농·한청 등 4개 단체는 3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 내부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분당까지 거론되는 등 심각한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당 단결과 혁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도숙 전농 의장은 공동성명 낭독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결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롭게 재도약해야 한다는 엄중한 국민 요구를 받아 안았고, 1월12일 중앙위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 혁신을 결의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혁신이 이뤄지지 기도 전에 당 일부 세력이 26일 소위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출범식’을 강행했다”며 “이는 당 분열을 기정사실화하고 가속시키는 행위로서 당 혁신과 단결을 바라는 당원들 노력과 진보정치 발전과 성숙을 열망하는 민중들 기대를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창당정신은 작은 이념 차이를 풍부한 실천을 통해 극복하고 모든 진보세력 단결로 민중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신당추진 세력이 부추긴 당 분열이 민중운동 전체 분열까지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성을 느낀다”며 “당 비대위는 분열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단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성명은 또 “비대위가 혁신 핵심내용으로 제출하고 있는 내용이 보수수구 반통일세력과 투쟁으로 쌓아온 민중들 통일운동 성과까지 유실시키고 진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남북노동자 연대사업과 통일농업사업조차 종북주의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는 당이 하루빨리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올바른 통일운동 입장을 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4개 단체는 “민주노동당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열망하는 국민들은 총선을 앞둔 시기 당이 더욱 단결하고 혁신해 명실상부한 진보정치를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당이 겸허한 자세로 지지대중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중 염원을 실현하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우리는 힘찬 총선투쟁 결의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제1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내에서 분당을 말하고 신당가입원서를 받는가 하면 조건부 탈당 협박까지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히고 “분단조국 통일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력이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까지 종북으로 비쳐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선도적으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다”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4월 총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후 정치세력화도 민주노동당을 통해 실현시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당은 하루빨리 분당논쟁에서 벗어나 통일단결된 힘과 기운으로 4월 총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덕윤 전여농 회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농민운동을 하오면서 농민과 여성들 목소리가 메아리쳐오는 것이 안타까워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고 다른 여성농민들 가입을 늘리고 있다”고 말하고 “분단조국에서 통일과업을 완수하는 것은 민중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인 만큼 민주노동당은 통일사업을 비롯해 서민 농민 여성 등 민중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진 한청 부의장도 “한청은 지난 대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민중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해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했

다”고 말하고 “요즘 분당을 내세우는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논리가 과연 진보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2001년부터 이적단체로 재판계류 중인 한청이 한총련처럼 소위 이적단체가 된다면 당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보정당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당이 언론지상의 비아냥거리가 돼선 안되며, 우리 한청은 민주노동당이 민중을 통해 집권을 이루는 그 날까지 당 강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한도숙 전농 의장은 “민주노동당이 모든 진보진영 희망을 만들어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말하고 “그동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단결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글=홍미리기자·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